

내달부터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재난 위기 단계 '관심' 하향...코로나 자율방역 전환 먹는 치료제 본인 부담 5만원·저소득층은 무료 유지

5월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광주시·전남도는 22일 "5월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돼 취약시설 마스크 착용과 감염 취약시설 의무가 해제되는 등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논의된 것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고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과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권고로 바뀐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한층 완화된다.

의료 지원 체계는 계절 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 의료 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인 만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검사비는 먹는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의료 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나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선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천~9천원대로 지원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은 계속 적용하고 일부 중증 환자에게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고위험군에게 무상 지원하던 먹는

치료제는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년 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 뒤 올해 9월 이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

김영록 지사는 "도민의 협조 덕분에 4년3개월만에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돼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일상생활에서 손씻기·기침예절 등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특히 호흡기 감염 고위험군은 추가 접종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정·박선경 기자

道, 장애인 활동지원사 맞춤형 양성

찾아가는 교육·주말반 신설 등 교육 접근성 높여

전남도는 22일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교육을 주말반과 찾아가는 교육 등 맞춤형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장생활로 주중에 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열악한 농어촌 지역 거주자 편의를 위해 신설됐다.

맞춤형 교육은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한다. 18세 이상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며활동지원사활동을바라는 도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권역별로 지정된 교육기관 3개소에서 3천명 수료를 목표로 지난해보다 14회 늘어난 총 59회 차로 확대 편성해 운영한다.

교육 과정은 기본과정(이론 및 실기교육 4시간·현장실습 10시간)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유사 경력자 등 이수강하는 전문과정(이론 및 실기교육 3시간·현장실습 10시간)으로 이뤄진다.

교육은 ▲장애의 이해·인권 ▲장애 유형별 활동 지원 ▲응급 상황과 대처 방법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 지원 등 장애인 활동지원사로서 가져야 할 직업윤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교육·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부권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061-332-4106), 동부권 광양시 광양장애인종합복지관(061-761-4438), 서부권(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061-284-6705)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정 기자

道, 국가지점번호관 정비

전남도는 22일 "산과 들, 강, 해안가, 공원 등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를 사군, 한전,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날부터 일제 조사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도민이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긴급구조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인명피해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빈도가 높은 등산로, 방파제, 수문, 철탑 등에 부여한다.

전남지역에는 9천36개가 설치됐으며 이 가운데 3천623개는 도와 시·군에서 관리하고 5천413개는 한전, 국립공원공단,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에서 관리한다. /양시원 기자



판문점 방문한 6·25참전용사 6·25한국전쟁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2일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내 판문점을 찾아 설명 듣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尹대통령, 새 비서실장 정진석 임명

정무수석엔 홍철호 前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은)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고,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 5선 국회의원을 했다"며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국회 사무총장과 같은 국회직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을 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엄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며 "대통령께서



정진석 홍철호

더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정치를 이끄는 데 미력이나마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 전에 먼저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 한 기업인"이라며 "어떤 민생현장의 목소리도 잘 경청하실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홍 신임 정무수석은 "이번 선거 결과는 민심을 확인하는 선거였다"며 "결괏값은 정부 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 기반 통합환경 구축

광주시·자치구 등 15개 기관 65개 정보 시스템 전환

광주시가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 기반 통합 환경을 구축하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공공 시스템 운영에 한발 다가섰다.

광주시는 22일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모델 시범사업'에 따라 총사업비 63억원을 투입해 광주시와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총 15개 기관의 65개 정보 시스템을 민간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민간클라우드 전환으로 연간 3억원의 이용 요금을 절감했다. 클라우드로 전환된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CPU, 메모리, 스토리지, 백업 용량 등 최적화 작업에 따른 것이다.

자치구와 산하기관에도 자원 최적화를 독려하고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이용 요금을 줄였다.

민간 클라우드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청구돼 초기 구축 이후 지속

적인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자원(리소스)을 최적화한 게 주효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클라우드 전환은 행정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시정 운영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운영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

광주시는 아직 전환되지 않은 정보시

스템은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교체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모니터링과 꾸준한 자원 최적화를 통해 자원간 통합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예산 절감은 물론, 지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의 운영으로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공공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해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공공 시스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선경 기자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미취학 아동 요충 감염 실태조사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22일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미취학 아동 대상 요충 감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충은 주로 맹장에 기생하는 기생충이다. 감염 시 항문 주위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특히 영·유아는 항문 주위를 긁으면 서 손톱 밑으로 충란이 묻어 감염돼 가

족 구성원에게 전파된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요충 총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태조사에 앞서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개요, 요충페덱트 사용법 등을 안내했다. /양시원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렸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정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1) 50%급매 임동 더현대쇼핑몰인근대로변 대지318㎡ 5층528㎡ 승강기1 주차6대 급매7억1,800

2) 화순 도곡 원화리 6차선도로변메인 계획관리 5,500㎡ 분할가능(시세50% 급처분)

3) 전일빌딩인접 중심상업지 코너 빌딩 대지804㎡ 7층5,300㎡ 승강기1 주차40 유동인구엄청 급처분68억(용자45억포함)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대,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개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